

탐문 동행한 유족 “새벽 3시, 형사는 차 안에서 졸고 있었다”

(살해 2시간 전)



수원 20대 여성을 토막살인한 중국동포 우위안춘(42)씨의 집 안이다. 쓰레기와 생활용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김도훈 기자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 허점투성이 경찰 수사

경찰의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수원 토막 살해 사건의 희생자 A씨(28·회사원)는 목숨을 구했음지도 모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탐문조사를 벌이던 2일 새벽 형사기동대가 범행장소 10m 앞까지 근접해 있었던 것이다. A씨의 언니(31)는 “새벽 3시쯤 형사 2명과 함께 형사기동대 승합차 안에 있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바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스무 발자국 거리의 두 집 건너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있던 형사들은 차 안에서 졸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중국동포인 우위안춘(오원춘·42)씨가 진술한 살해 시각은 새벽 5시다. 형사들이 코앞에서 자는 동안 범인 우씨는 잔혹한 살해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실종 다음날(2일) 오전 8시쯤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을 요구한 유족들에게 돌아온 경찰의 대답은 “가족이 해야 빠르니 소방서에 가라”는 것이었다. 사건을 총지휘해야 할 수원중부서 형사과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 두 시간 가까이 지난 2일 자정 넘어서 처음 보고를 받았다. 경찰의 감찰조사 결과 그는 신고가 접수된 지 10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와 지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우씨의 잔인함은 강력사건 현장을 술하게 뒤엎던 형사조차 경악할 정도였다. 현장 검증에 나선던 경찰관들은 “그의 잔혹성이 상상을 초월했다”며 “범행을 재연하는 걸 보고 ‘초범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전 11시50분쯤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우씨의 집을 급습했을 때 A씨의 시신은 담요에 덮여 있었다. 방과 화장실에는 흉기와 스펀지,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신체의 상당 부분은 토막 나고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욕실에는 칼날을 가는 도구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마치 도축하듯 칼날이 무뎠다면 갈아가며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다.

우씨의 국내 입국 후 행적은 여죄 가능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우씨는 2007년 9월 취업 위해 입국해 경남 거제시로 갔다. 이곳에서 그는 막노동관을 전전했다. 현장사무실 겸 숙소로 쓰는 간이 컨테이너나 여인숙에서 생활했다. 이듬해 6월 부산에 갔다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대전과 용인을 거쳐 2010년 1월 제주도의 한 골프장 일용직으로 취직했다. 수원에는 지난해 중순께 올라왔다. 수원에 와서도 그는 막노동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전국을 돌면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우씨가 거주했던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발생한 미제 사건 피해 여성은 모두 135명이다. 살해됐어도 범인을 찾지 못했거나 실종된 이들이다. 경찰은 일일이 확인하며 우씨와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아직까진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번 범행이 의도적이었다는 것도 여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는 “집 앞에서 여개가 부딪혀 시비 끝에 집으로 데려가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여자가 한밤중에 인적 없는 곳에서 낯선 남자에게 시비를 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피의자의 주장은 변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수원=전익진·유길용 기자 y2k7531@joongang.co.kr

울분 토하는 유족들

휴대전화 위치 추적 요구했더니

“가족이 해야 빠르니 소방서 가라”

다른 범행은 없나

거제·부산·용인·제주 옮겨다녀

그 지역 미제사건 피해여성 135명

경찰 말바꾸기

출동 시간	2일 오전 2시32분 배치 완료→ 실제로는 2일 오전 6시50분 배치 완료
통화 시간	처음엔 15초→1분20초→4분→ 실제로는 7분36초
탐문 방법	집집마다 방문→ 실제로는 골목·대문앞 청음
전화 내용	두 하고 끊겼다→ 실제로는 비명 소리와 테이프 찢는 소리
출동 경찰	강력팀 형사 35명 전원 투입→ 실제로는 처음엔 5~6명 출동

범인의 행적

- 2007년 9월: 국내 입국(만기 유효 9월). 산업인력공단 1개월 교육 수료 후 거제도 이주
 - 2008년 6월: 부산-대전-용인 등 8개 지역 돌아다녀
 - 2010년 1월: 제주도(골프장 일용직)
 - 2011년 5월: 수원
 - 막노동관 전전하며 현장숙소와 여인숙 등 생활
- ※ 범인 행적지에서 발생한 실종 여성: 135명 (경찰이 연관성 확인 중)

제15회 대학생 국토대장정 박카스와 함께하는 국토대장정 대원모집

• 행사일시: 2012년 7월 4일(수)~7월 24일(화), 총 20박 21일 • 행정구간: 여수(출정식)-순천-경음-김제-군산-익산-공주-한양-안성-용인-생남-서울(원주식) 총 580.6km

• 신청방법: www.kukto.co.kr에서 온라인 접수 (국내/해외 동일) • 참가대상: 국내 및 해외 거주 대학생 (전년대입 대학원생 포함) • 참가비용: 전액 주최사 지원

• 신청기간: 2012년 4월 9일(월)~4월 20일(금) • 선발방식 및 인원: 소정의 서류 심사 후 추첨 및 신체검사(총 144명/남 72명, 여 72명) • 발표: 2012년 5월 4일(금) www.kukto.co.kr 게시

• 국토대장정 행사본부 전화: 02-920-8677~9 팩스: 02-920-8690 e-mail: info@donga.co.kr • 주최: 동아제약 • 주관: C&H, 메르켈 • 협찬: 메르켈 • 후원: 삼성, 한양 • 의료지원: 연세대학교

서울경찰청 “인터넷에 사과 댓글 달아라” 이 와중에 경찰관 동원해 우호 여론 만들기

누장 대처, 부실 수사 비난 들끓자

“경찰서별 10건 이상 ... 점검하겠다”

‘수원 토막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비난 여론이 들끓은 지난 주말(6일 오후 6시), 서울의 한 경찰서 정보과에서 일하는 경찰관 박모씨는 당직자에게서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수원 사건 관련 여론 악화. 각종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해 신분 밝히고 사과·재발 방지 댓글 달 것. 8시 지방청에서 중간 점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 당직자를 통해 전달한 메시지였다. 이 경찰관은 인터넷에 접속해 관련 기사에 ‘대한민국 경찰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란 댓글을 달았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날 오후 10시에도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엔 서울청에서 직접 보낸 것이었다. ‘휴일에도 협조 감사하다. 논란이 지속돼 내일도 추가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7일 오후 2시에 ‘힘들겠지만 경찰서별로 10건 이상씩 부탁한다’는 메시지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들이 사과 댓글을 많이 쓴다고 해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모르겠다”며 “사과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지

시를 받아 하니 짝뚱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경찰관을 동원, 인터넷 여론몰이에 나섰다. 누장대처·부실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청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6일 오후부터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찰관으로서 용서를 구한다’, ‘경찰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내용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경찰의 여론몰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 경찰서 소속 이모 경장은 “지난해 11월 중로경찰서장이 반(反)FTA 시위대에 폭행당했을 때에도 ‘종로서장 폭행 관련, 트위터 댓글달기 참여하고 내일 결과 취향 예정’이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동원됐다”고 말했다.

경찰서마다 3~5명씩 지정된 ‘사이버담당관’들이 주로 댓글작업에 나선다. 경찰청에선 여론을 쉽게 주도하기 위해 매달 이들의 트위터 팔로어 수를 합쳐 보고토록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시한 것이지 강제는 아니다”며 “잘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